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순항'...노선개편 안정화

**공영버스 체계 운영 효율성 극대화
내년부터 위탁 공영버스 운영
목포대교 인근 공영차고지 조성
친환경저상버스 14대 추가 도입**

목포시 최대 현안 사업인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돼 2025년부터는 새로운 공영버스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노선체계

전면개편과 6월 미세조정 등을 거쳐 노선개편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개편 노선의 주요 특징은 운행 효율성 향상을 위해 넓은 길 중심의 경로를 설정하고 직선화해 기존 20개 노선(시내 13개, 시계외 7개), 137대를 15개 노선(시내 8개, 시계외 8개), 128대로 효율화한 것.

시는 노선개편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독점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고 1개의 직영사업자(직영 공영제)와 3개의 위탁사업자(노선입찰형 준공영제)가 경쟁하는 공영버스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위탁 공영버스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로 입찰을 통해 선정된 3개 버스 회사에 한정면허를 발급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경영 합리화 및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9월 전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및 평가를 추진해 금호익스프레스(주), 마창여객(주), ㈜신흥운수 3개 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는 12월까지 선정된 업체에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5년간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

다. 시는 공영버스 전환에 맞춰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해 버스 번호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고 버스 도착 시간 정확성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이용자 편의 개선에 힘을 기울인다.

이어 시는 필수 인프라인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영차고지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목포대교 인근 약 9500㎡ 규모로 사무공간,

정비시설, 운수종사자 휴게 시설, 충전시설 등을 포함해 버스 7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내년에는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도 본격화함으로써 연초 11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영버스 관련 절차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더 나은 공영버스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삼학동, 꿈키움 공부방 만들기 지원

아동·청소년 책상 전달

목포시 삼학동이 다자녀·한부모(조손) 가정 등 10세대를 대상으로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공부방 만들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7일 목포시 삼학동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으며 아동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세트 10개, 산소발생 공기살균기 3대, 비누세트 10개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1500만원)을 지원했다.

삼학동 관계 공무원은 가정방문 시 밥상에서 공부하는 아동의 모습을 목격, 지

난 7월부터 다자녀·한부모(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환경 취약군 10세대를 선별했다. 이어 초록우산 연계를 통한 한전KPS(주) 한빛2사업소 후원으로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김선희 삼학동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 아동들이 자신감을 얻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들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연동 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연동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김장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 150박스는 관내 소외가구에 전달됐다. 목포시 제공

연동 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 김장 김치 나눔

소외가구·독거노인 등에 전달

목포시 연동 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2일 공동 주관해 연동행정복지센터 1층 주민사랑방에서 '사랑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17일 목포시 연동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부녀회원과 협의회원 및 동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150박스를 직접 담가 연동 내 소외가구, 독거노인, 경로당 등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나눔의 온기를 나눴다.

임화성 부녀회장은 "사랑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사랑으로 버무린 김치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석 협의회장은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협의회, 부녀회, 동 직원 모두가 함께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미경 연동장은 "이른 아침 추운 날씨

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김치를 직접 담고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어나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다양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열무김치, 김장김치를 손수 담가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새마을협의회는 사랑의 집수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부주동 부주장학회가 관내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750만원을 전달했다. 목포시 제공

부주장학회, 지역 인재 학생 10명에 장학금 750만원

목포시 부주동 부주장학회는 최근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5명에게 총 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각 50만원, 대학생에게 각 100만원이 지급됐다.

부주장학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저소득 청소년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68명에 약 4150만원의 장학금을 후

원했다. 부주동 내 샬레교회도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후원금을 기탁, 지역 학생들이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학회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오천 부주장학회 회장은 "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발전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어린이도서관,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접수

목포어린이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1월14일부터 초등학교 1~4학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열쭉쭉 동화 전통놀이, 오감만족 동화책요리, 재미만점 3D펜 아

트 등 다양한 강좌와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강좌는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선착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재료비 별도)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1-287-192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청사 내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 일회용품 감축 앞장

목포시가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청사 본관 1층과 구내식당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설치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텀블러 자동세척기는 원터치 버튼 형식으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1개당 45초 이내로 컵과 빨대, 뚜껑 등을 고온 살균 세척한다.

시는 텀블러 세척기 설치로 직원들이 손쉽게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회용 컵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일회용품 없는 청

사'를 목표로 전 직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다짐 서약서 작성, 전 부서에 1회용품 줄이기 홍보용 홀더화일 배부, 민원응대용 다회용 컵 제공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향후 직원 만족도 등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텀블러 세척기의 공공서 설치를 확대해 청사 내 직원뿐만이 아닌 민원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